

무시무시했던 KIA '외야 정글' 어쩌다 이지경 ...



- 김원섭**
극심한 타격 부진
- 김주찬**
손목 골절 전력 이탈
- 이용규**
체력 부담에 지명타자로
- 김상현**
SK로 이적
- 신종길**
햄스트링 부상 엔트리 탈소
- 나지완**
롤러코스터 활약에 불안



김주찬·신종길 부상 ... 김상현 이적 ... 이용규·나지완·김원섭 동반 부진에 '시름'

KIA의 외야가 부상과 부진에 흔들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신종길이 16일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SK와의 홈경기가 열린 15일, 9회 말 선두타자로 나왔던 신종길은 우전 안타로 출루한 뒤 허벅지 통증으로 대주자 이준호로 교체됐다. 재활군으로 내려간 신종길의 복귀에는 3~4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공·수에서 확 달라진 모습으로 '유망주'라는 꼬리표를 떼어냈던 신종길이 빠지면서 KIA의 외야에 위기가 찾아왔다. 올 시즌을 앞두고 KIA 외야에는 FA 대어 김주찬의 영입과 함께 생존싸움에 뜨겁게 전개됐다. 김주찬과 이용규가 자리를 선점한 가운데 남은 한자리를 놓고 나지완·김원섭·김상현·신종길의 경쟁이 치열했다.

수비에 맞춰 또는 공격에 맞춰 어느 선수를 활용할지를 놓고 벤치에서는 즐거운 고민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순위 싸움을 앞두고 외야가 부상과 부진으로 흔들리고 있다. 외야 경쟁과 화끈한 타격에 불을 붙였던 김주찬이 개막 1주일도 안 돼 손목 골절로 이탈했다. 신종길이 깜짝 활약으로 김주찬의 공백을 완벽하게 채웠지만 다리에 문제가 생겼다. 남은 외야 자원에도 문제가 있다. 과워있는 김상현은 SK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다른 유니폼을 입었고, 조금씩 타격 컨디션이 오르고 있지만 김원섭과 이용규의 위력은 지난 가을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4번 나지완도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최근 KIA의 득점력이 뚝 떨어졌다.

신종길이 빠진 16일 체력부담으로 이용규가 지명타자로 나오면서 KIA의 외야는 나지완-김원섭-이준호로 출발했다. 김원섭이 3번 타자로 나와 중견수 자리에 섰고, 나지완은 4번 타자 겸 좌익수로 나왔다. 이준호는 9번 자리에서 우익수를 맡았다. 선동열 감독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부상이었다. 신 감독은 "신종길이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탈소가 됐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부상을 가장 걱정했는데 부상선수가 생기고 있어서 걱정이다. 타격 밸런스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민이 16일 SK전에서 선발 임무를 시작하면서 좌완 임준섭이 스윙맨으로 변신했고, 이적생 신승현과 송은범이 가세하면서 마운드는 한층 탄탄해졌다. 그러나 타선의 새로운 돌풍이자 기동력의 핵심이었던 두 외야 자원이 빠지면서 투·타의 불균형은 심화됐다. '호랑이 군단'에 타격 침체와 부상이라는 악재를 동시에 넘어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6개 잔루 졸전 끝 패배 뒤 나지완 "현종아 미안해"

① 덕아웃 말말말

▲현종아 미안해=16일 덕아웃에서 훈련을 준비하던 나지완, 전날 SK전 선발투수였던 양현종이 지나가자. KIA는 15일 11회 연장까지 가는 승부에서 16개의 잔루를 남기는 졸전 끝에 3-4패를 기록했다.

▲그래 쉬어. 오늘은 (점수)많이 뺏아줄 거야=서재용, 앤서니가 16일 컨디션이 좋지 않아 등판이 어렵다고 하자.

▲'당풍 너 치려고 그러냐고 혼났어'=타자로 나선 경험을 얘기하던 조규제 투수 코치, 당시 상대팀 포수가 장재근 선배였는데 타격하려고 발을 내밀었다가 혼났다면, 연장 승부가 벌어진 15일 수비 문제로 9번 타순에 투수가 들어가면서 앤서니가 10회 첫 타자로 나오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우투수지만 왼손잡이인 앤서니는 좌타자 최희섭의 장비와 이범호의 방망이를 빌려 타석에 들어섰고, 초구 볼에 이어 1B-2S에서 공을

커트해내며 팬들의 환호성을 받았다. 앤서니는 박희수의 4구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두 탕 뛰니까 밥 두 그릇 먹어라=김광호 코치가 덕아웃에 있던 최현락을 보고, 16일 햄스트링 부상으로 신종길이 엔트리가 탈소되면서 최현락은 2군 경기를 뛰 뒤 바로 1군에 합류했다.

▲내가 버티고 있을 게=김원섭, 부상으로 엔트리가 탈소된 신종길이 작별 인사를 하자.

▲불편해 보인다=선동열 감독이 나지완을 향해, 시즌 들어와서 살이 많이 쯤 것 같다며.

▲이쪽에서 얘기한 걸 들었나 봐=훈련을 하는 이범호에 대해 얘기하던 선동열 감독, 관중석에서 '잘생겼다. 이범호'라는 응원 구호가 나오자.

▲요즘 세상이 거꾸로 가요=이범호, 선동열 감독이 "팬이 잘생겼다고 하더라"면서 웃자.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시내티 레즈 추신수가 16일(한국시간) 미국프로야구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홈경기에서 4회말 좌중간 펜스를 넘기는 시즌 8호 솔로 홈런을 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신수 4안타 2홈런 '불꽃타'

신시내티 4-0 승리 이끌어

'추추트레인'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연타석 홈런을 터뜨리는 등 한 경기 4안타의 불발망미를 휘두르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추신수는 16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말린스 파크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방문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출전해 솔로 홈런 2개를 포함해 5타수 4안타와 2타점, 3득점을 올렸다. 추신수가 한 경기 두 개 이상의 홈런을 터뜨린 것은 이번이 9번째다. 2008년 9월 20일 디트로이트전에서 개인 통산 첫 '벌터 홈런'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2009년 한 차례, 2010년 네 차례나 한 경기 두 개 이상의 홈런을 몰아쳤다. /연합뉴스

2012년 한 차례 하루 두 개 홈런을 터뜨린 추신수는 올해는 지난 8일 애틀랜타와의 경기에서 올 시즌 6, 7호 홈런을 잇따라 때리며 팀의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이끌었다. 이어 8일 만에 8, 9호 홈런을 만들어내며 맹렬한 폭발력을 과시했다. 추신수의 한 경기 최다 홈런기록은 2010년 9월 18일 캔자스시티전에서 때린 3개다. 개인 최다인 한 경기 네 개의 안타를 때린 것도 이날이 7번째다. 2009년 세 차례 한 경기 4안타를 기록했고 2010년 한 차례, 2012년 두 차례 4안타 경기를 치렀다. 추신수는 또 이날 팽타로 개인 통산 홈런 92개와 타점 392개를 기록했다. 각각 8개씩만 더하면 통산 100홈런과 400타점 고지를 밟을 수 있다. /연합뉴스

신양파크호텔 가정의달페스티벌

가족·스승 동반 이벤트 | 행사기간 2013. 5. 1(수) ▶ 5. 31(금)

- 행사1** 중식당 SET메뉴, 일반식사 4인 이상 드실 경우 1인 무료
 <특별메뉴> (대사이즈 주문시 (사사이즈 가격 적용 판매) 돼지고기탕수육(대) → ₩41,800 → ₩30,800 전가 복(대) → ₩82,500 → ₩60,500 ※회원 중복 할인 적용 되지 않습니다.
- 행사2** 양식당 스테이크 (안심/등심) 4인 이상 드실 경우 1인 무료 ※회원 중복 할인 적용 되지 않습니다.
- 행사3** 중식당&양식당 이용고객 경품추첨 (당일 명함 수거 및 번호 배부 추첨) 5월 31일~10월, 15일 스승의 날 17일 석가탄신일, 21일 부부의 날 (점심) 오후 2시, (저녁) 오후 8시 추첨 레스토랑 상품권 각 1매

웨딩홀 새단장 기념 신양 웨딩 Special 이벤트!!

7~8월 웨딩 확정시 특별할인가격

뷔페 33,000원 ~ 스테이크 38,500원 ~

Membership 신설 신양파크호텔의 품격있는 VIP로 초대합니다

- ① 휘트니스 Gold 멤버십 (보증금 6개월 : 125만원 1년 : 248만원)
- ② First Class 포시즌 멤버십 297,000원

Shin Yang Park Hotel
 예약 및 문의 062)228-8000/221-4101~3